

2019학년도 하계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9. 08. 05. ~ 08. 25.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스카이 트레인과 가까워서 이동하기 편합니다. 강의실과 카페테리아가 가까워서 점심시간에 이동하기 좋았습니다. 각 층에 자판기가 있어 편리하였습니다. 첫 주는 랑가라 학생들 시험기간이어서 본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업	각 반마다 선생님이 달라 그 분의 성향에 따라 수업이 진행됩니다. 저희 받은 바인더를 중점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주로 앉은 자리 주변 학생, 선생님께서 정해진 학생들끼리 그룹수업을 합니다.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이 아닌 그룹수업으로 의견을 모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작지만 숙제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숙제였지만 매일 해야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필드트립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필드트립)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여부 등 첫 주에 디스커버리 밴쿠버를 통해 밴쿠버 지리를 파악하고 역사나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여 카약킹을 하고 왔습니다. 끝나고 젤라또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아쿠아리움과 밴쿠버 박물관은 3시까지 관람하고 수업이 끝납니다. 휘슬러를 갔을 때 아침에는 날씨가 안 좋았지만 점심 이후에 날씨가 좋아져서 두꺼운 옷, 얇은 옷 모두 필요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고 점심 이후에는 해가 따가워서 얇은 셔츠나 후드 집업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날씨가 건조하여 로션이나 알로에를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안전	한국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버스도 1시까지 운행하고 나이트 버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지품은 쉽게 도난 당할 위험이 높아 항상 조심하고 확인해야했습니다.
숙소	홈스테이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 전원주택으로 홈스테이 온 학생당 방 하나를 사용합니다. 부엌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은 다정하게 항상 안부를 물어주고 점심에 무엇을 원하는 지 물어봐주었습니다. 다른 집과는 다르게 특별한 주의사항도 없었고 저녁식사 여부만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 외부식당 (V) 기타 () 아침은 부엌에 준비해준 음식을 먹고 점심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다운타운에 한식당이 많아 한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먹었습니다. 그 외 캐나다 맛집이나 가까운 식당을 이용하여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교통	학교에서 제공한 compass카드를 이용하여 교통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존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추가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평일 18시 30분 이전에 스카인 트레인을 이용하여 리치몬드에 간다면 1.25달러를 지불하였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버스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구글지도를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쇼핑, 식사	1,100,000	
항공권	1,800,000	

보험	25,000	
비자	15,000	실수로 두 번 납부
합계	2,94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날씨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옷차림과 준비물을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서 사거나 홈스테이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기 전에 홈스테이 가정에게 이메일로 문의드려서 준비해 가야할 물품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학교 수업을 하고 방과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녀 평소 대학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3시에 수업이 끝나다 보니 초등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여유가 넘쳤고 자신들의 삶을 즐기면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즐기며 생활하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 '조금은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즐기면서 사는 행동이 더 나은 결과물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고 싶은 곳을 검색하면서 여기에서 진짜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밴쿠버는 한국인들도 많고 다문화여서 다른 나라에 비해 인종차별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차이를 이해하며 그 사람만을 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캐나다에서 워홀이나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필수)

		
휘슬러		휘슬러
		
리치몬드		나이트 마켓
		
선셋		PNE